

시론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사전문가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급발전,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속도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각종 사고와 사건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속도전쟁, 인공지능(AI)으로 발전되는 각종 기기의 다양한 발전 등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세상을 사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의 원래 기능인 통화기능은 이제 별로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 되어가고 주로 게임, 영상촬영, SNS콘텐츠 활용 등 생활형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휴대전화기는 몸에 지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컴퓨터가 몸속으로 삽입돼 아예 인간이 휴머노이드(인간로봇)가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느긋한 기다림의 미덕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과학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면 불과 30년 전에는 수동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가속페달을 번갈아가면서 밟으며 속도를 변환하고, 심지어 수랭식 엔진이 과열돼 자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라

동차를 세워 놓고 물을 부어대는 광경도 흔했다. 과학의 발달로 자동차에는 많은 전자장치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오토매틱 스틱, 전자동 윈도 시스템, 각종 전자 제어장치를 비롯한 통신 기능의 탑재, 내비게이션, 자동운전시스템, 자동차 위치 추적, 자동차 사고조절 기능 등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전자장치는 너무 다양하지만 실상 그 기능을 3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이렇게 현대전화기와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 과학의 발전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일하고, 공부하지만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앞에서 인간은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동차 공간마저도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고, 원인도 이유도 잘 밝혀지지 않는 각종 사건과 사고는 우리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약 2천700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0.5대 정도이니 순간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전국의 도로가 막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각종 모빌리티 이동 수단들까지 동원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정도이다.

필자는 예전 글에서 운전대 위에 도(道)가 있다고 말을 했다.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마음만 잘 다스려도 면벽수도(面壁修道) 10년 보다 낫다. 자동차가 과학화되고 고기능화되어가도 갈수록 늘어가는 교통사고의 이면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교통문화가 꼭 필요하다. 이제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할

때다. 자동차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신호등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계다. 방향지시등은 말이 없지만, 자동차의 중요한 언어 소통 도구다. 도로(道路)는 도를 닦는 길이다. 자동차 면허증은 자동차와 인간을 이어주는 소통 자격증이다. 나만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존중과 배려, 사랑의 미덕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때 나를 비롯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뛸 때 속도를 보라,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속도를 줄여야 할 때다. 빨리 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다. 핸들을 자유자재로 쥐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듯이 부드럽게 운전대를 잡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배려심과 상대방을 위한 존중심이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다. 바쁘고 빠른 세상에 마음의 브레이크에 밟을 얹고 가볍게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삶의 속도를 조절해준다.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2차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부도덕한 교통사고 경유를 보더라도 유명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베스트 드라이버다. 당신의 마음 브레이크에 밟을 살짝 올려보자. 마음이 행복해진다.

社說

골든타임 전남 국립의대...지역갈등 조장 도움안돼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 신설과 관련,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공모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논란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190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지적에는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설립 방식 결정, 평가 기준 마련, 심사 등 3단계로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용역기관과 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전남도가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불참을 선언하고 계속 반발하는 순천시·순천대를 비롯한 동부권의 민심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서부권인 목포대만 단독 참여한다면 10억원에 가까운 월세를 들인 용역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정부 또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의 입장대로 법적 정당성 시비 등은 사실과 다르다. 계속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도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남도와 협의를 내비치고 있다. 공모를 존중해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장관이 직접 밝힌 상황이다. 경북도의 사례도 대안이 아니다. 안동대는 일반 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투트랙으로 추진되는데, 전남은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한다.

30년 염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변수로 남아있는데다 지역이 분열한다면 결국 무산되고 책임 소재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복해야 한다.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결은 안 된다. 이번에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직무유기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5·18 왜곡, 동조 공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가 198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규정했다고 한다. 헌정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자 전두환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하고',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인 것처럼 호도했다. 광주시와 5·18단체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 도대우 공천 파동과 황상우 시민사회수석의 낙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낙선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또한 5·18을 왜곡· 폄하하는 SNS 글에 동의, 극우적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망스럽다. 더 이상 공직사회에 무모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

국제청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도덕성, 역량 등을 검증할 청문회를 앞두고 강 후보자는 "국제청의 역할과 국제청행정이 나

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대로면 통과하기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과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기획·세정 분야 보직을 거친 정통 세무관료라는 강 후보는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제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런데 공직자라면 능력보다 기본 자세에서 오점이 없어야 한다. 특히 역사 문제에서 편향된 사고를 가져선 곤란하다. 과거의 슬한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대통령실의 후보 검증에 오류가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짓밟았다. 후보들 스스로도 용퇴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즉시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점연한방병원장

7월에 접어들며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외부 온도가 상승하고 인체의 온도도 올라가며 발열(發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단순히 더워서 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정 질환으로 인해 열이 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온열질환인 일사병이 전자이고, 간과하기 쉬운 신우신염이 후자이다.

일사병은 외부의 열 자극으로 인해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40도 사이로 상승하는 질환이다. 흔히 말하는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중증의 질환으로 심부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나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위험한 질환이다. 일사병의 증상으로는 뜨겁고 건조한 피부상태, 빠른 맥박과 호흡, 두

발열(發熱)이 있을 때 의심해 봐야할 질환

통 및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보이며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발전하여 화상, 경련, 실신 등의 심각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일사병인 환자는 즉시 외부 열 자극을 피해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며,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체온을 낮춰줘야 한다.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위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양방 협진을 시범사업 중인 한방병원에서는 열을 식히고 일사병을 예방해주는 한약치료와 수분을 보충해주는 수액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허부의 방광이나 요도가 아닌 상부의 신장, 신우에 세균(박테리아)이 감염된 상태이다. 대장균이 가장 흔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번식을 하므로 여름철에 호발한다. 급성 신우신염에 걸리면 허리에서 옆구리에 이르는 부위로 통증이 있고 발열을 보이며 배뇨통, 잔뇨감도 나타난다. 특히 골극추추각(등 뒤에서 맨 아래 갈비뼈와 척추가 만나는 부위)을 살짝만 스쳐도 통증이 심하다. 발열은 일사병처럼 정상 체온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발열의 형태가 다양하여 허리통증만을 보고 치료하다 통증이 낫지 않아 뒤늦게 신우신염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우신염은 허리가 아프면서 발열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꼭 의심해 봐야 한다.

급성 신우신염은 세균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통한 치료도 선행돼야 한다. 일반적인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1-2주 간의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호전되지 않는 신우신염은 신장 농양 및 패혈증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장 초음파, CT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신우신염 같은 요로감염의 경우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으로 반복되는 요로감염에는 면역력을 끌어올려 원인에 맞서 싸워 예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한약치료가 효과적이다.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연구결과가 좋은 저령탕(猪湯)을 활용하며,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한약치료가 이뤄진다.

무더운 여름에 열이 난다고 해서 당연사히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길 권해드린다.

적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 구형 전동휠체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조명등, 전조등 등 야간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 높이가 완만하지 않거나 볼라드가 박혀 있어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

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찰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덕형·무안경찰서 통탄치안센터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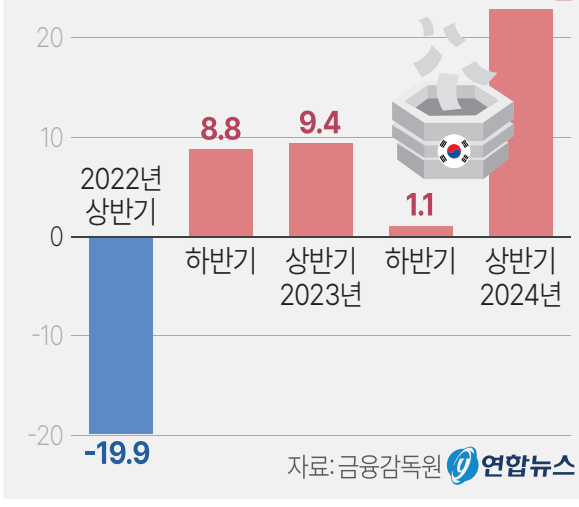
상반기 외국인 국내주식 22조9천억원어치 샀다...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22조원 가까이 순매수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주식 순매수는 총 22조9천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협 선호 심리가 나타난 가운데 미국발 인공지능 반도체주 열풍 등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6월 상장주식 2조8천900억원을 순매수해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천40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9천4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80조2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3개월 만에 순회수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3천71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4천10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1조46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조355천억원이다. 이는 상장 잔액의 98% 수준이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독자투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휠체어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순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일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인도 적치물 및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 등 이동권이 열악한 환경 탓에 차도로 내려 서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